

## 독일어 긴밀결과구문에 대하여<sup>1)</sup>

최도규(충북대)

### 1. 머리말

본 논문에서는 독어통사론의 부분영역에 속하는 긴밀구문 kohärente Konstruktion에 대해 논의된다. 긴밀성 Kohärenz에 대한 언어학적인 논쟁은 Bech(1955/57)로 거슬러 올라간다. 최근에는 원리와 매개변항이론 Prinzipien und Parametertheorie 내에서 긴밀구문이 문장가가 있는 비긴밀구문 즉 소절 Small Clause로부터 유도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위 문제와 관련하여 소개분석 Evakuierungsanalyse, 동사상승분석 Verbanhebungsanalyse, 재분석 Reanalyse, 통합분석 Unifikationsanalyse 등의 여러 분석들이 제안되었다.

이런 분석들 가운데 소개분석, 동사상승분석, 재분석은 유도적 분석에 속하고, 통합분석은 비유도적 분석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지금까지 제안된 분석들 중 유도적 분석은 경험적 이론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긴밀성 이론에 대해 살펴보고, 3장에서는 결과구문이 새로운 긴밀구문으로 제안되며, 4장에서는 유도적 분석들이 긴밀구문에 대한 본래의 구조로 가정하는 소절구조에 반대되는 증거가 제시된다.

---

1) 본 논문은 대우재단에서 있었던 현대독어학회 월례모임(1999년 5월 14일)과 성균관대학교에서 열렸던 한국독어학회 학술발표회(1999년 6월 25일)에서 구두로 발표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이 두 발표회에서 귀중한 조언을 주신 정재현 교수님, 이민행 교수님, 구명철 선생님 및 토론에 참석하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 또한 개선점을 지적해주신 익명의 두 심사위원 선생님께도 감사드린다.

## 2. 긴밀성 이론

### 2.1. 긴밀성의 정의

Bech에 의해 처음으로 사용된 긴밀성의 개념은 위상적인 관점 하에서 정의된다. 그에 따르면 부정법구문이 외치 Extraposition되면 주문장의 동사와 부정법구문의 동사는 긴밀하지 않으며, 부정법구문이 외치되지 않고 중장 Mittelfeld에 놓여 있을 때 그 동사들은 긴밀하다.

Bech에 의한 긴밀성의 개념에 대한 정의는 다음 예문을 통해 설명된다.

- (1) a. daß er *die Briefe zu lesen* versucht  
 b. daß er nicht wagt, *den Plan fallen zu lassen*

Bech가 위상적인 관점 하에서 긴밀성을 정의한 것과는 달리, 원리와 매개변항이론 내에서 긴밀성은 통사적인 관점 하에서 부정법구문의 문장성과 관련하여 정의된다. 문장이 문장가가 없는 nicht-satzwertig 부정법구문을 포함할 때 그 문장은 긴밀하고<sup>2)</sup>, 문장이 문장가가 있는 부정법구문을 포함할 때 그 문장은 긴밀하지 않다. (Stechow & Sternefeld 1988)

- (2) a. weil der Oberförster [sich rasiert zu haben] bezweifelte  
 b. \*weil sich<sub>i</sub> der Oberförster [e<sub>i</sub> rasiert zu haben] bezweifelte

2) 문장이 문장가가 없는 부정법구문을 포함할 때, 긴밀성효과뿐만 아니라 비긴밀성효과를 갖는 문장들이 있다. 이런 문장들은 소위 제3구문 die dritte Konstruktion (vgl. den Besten & Rutten)이다.

- a. daß er *ihr* versuchte, einen Stabsauger aufzuschwätzen  
 b. daß er *dich* versuchte, damit zu erschrecken

(a,b)에서 부정법구문은 외치되었고, 부정법구문의 논항들은 상위문의 중장에 놓여있다. 본 논문에서는 제3구문에 대해 더 이상 논의하지 않겠다. 제3구문에 대한 최근의 논의에 대해서는 Wöllstein-Leisten(1998)을 참조.

- c. daß niemand [den Wagen zu waschen] versuchte
- d. daß den Wagen<sub>i</sub> niemand [e<sub>i</sub> zu waschen] versuchte

(2b)에서 부정법동사의 보충어인 sich<sub>i</sub>가 상위문의 주어 앞에 놓여 있을 때 그 문장은 비문법적이고, (2d)에서처럼 부정법동사의 보충어인 den Wagen<sub>i</sub>이 상위문의 주어 앞에 놓일 때는 문법적이다. 이 두 문장의 문법성은 부정법구문이 문장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구분된다. 문장(2b)는 비긴밀구문이고 (2d)는 긴밀구문이다. 이 때에 문장가가 있는 부정법구문의 주어는 음성적으로 실현되지 않는 가상적인 주어 PRO로 가정된다.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긴밀한 부정법구문과 긴밀하지 않은 부정법구문의 통사구조는 다음과 같다.

- (3) a. [VP .....[[zu+v] v]]
- b. [VP[CP PRO ..... zu+v] v]

또한 부정법구문은 위치와 주제화 Topikalisierung와 관련하여 필수적 긴밀구문, 필수적 비긴밀구문, 임의적 긴밀구문 등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 (4) a. \*daß man kaum gepflegt hat, seine Nachbarn zu grüßen
- b. Zu grüßen gepflegt hat er seine Nachbarn kaum
- (5) a. daß Max noch nie bedauert hat, sie geheiratet zu haben
- b. \*Geheiratet zu haben bedauert hat sie Max noch nie
- (6) a. daß er den Wein zu genießen verstanden hat
- b. daß er verstanden hat, den Wein zu genießen
- c. Zu genießen verstanden hat er den Wein

주어 의미역을 부가하지 않는 scheinen, pflegen 등의 상승동사는 필수적

긴밀구문을 형성하는데 이런 구문은 (4a,b)가 보여 주듯이 의치가 불가능하고 동사연결체가 전장 Vorfeld에 놓일 수 있다. (5)에서 처럼 보문의 명제를 추측하는 bedauern과 같은 동사는 항상 비긴밀구문만을 허용한다. 이런 동사는 오직 CP만을 선택한다. 이런 경우에 비긴밀구문은 의치가 가능하지만 동사연결체의 주제화는 가능하지 않다. 또한 부정법구문은 한편으로 문장가를 지닐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 문장가를 지니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런 구문을 임의적 긴밀구문(6)이라 부른다. 임의적 필수구문은 다음과 같은 통사적 특성<sup>3)</sup>을 갖는다.

- (7) a. 전장에 놓이는 동사연결체
- b. 분리될 수 없는 동사연결체
- c. 모든 동사를 포함하는 부정어의 작용역
- d. 주어 앞에 있는 박커나겔위치<sup>4)</sup>로의 이동
- e. 장거리 수동

위의 특성은 다음 예문에 의해 설명된다.

- (8) a. *Zu waschen versucht hat niemand den Wagen*
- b. \**daß mich<sub>i</sub> Hans [e<sub>i</sub> anzurufen] gestern vergessen hat*
- c. *daß er mich nicht zu stören versucht hat*
- d. *daß ihn<sub>i</sub> Max e<sub>i</sub> zu grüßen vergessen hat*
- e. *Zu reparieren versucht wurde der Wagen/\*den Wagen nicht nicht*

3) 이러한 특성들은 Fanselow(1989), Grewendorf(1987, 1988), Haider(1993, 1994), Jacobs(1990), Stechow & Sternefeld(1988)에서도 논의된다.

4) Wackernagel은 독일어 중장의 맨 앞에는 인칭대명사들만이 차지하는 고유한 위치가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지적하였는데, 이 위치를 그의 이름을 따라 박커나겔위치라 부른다.

의존하는 동사와 본동사는 (8a)에서 하나의 통사단위를 형성하고 그것은 전장에 놓일 수 있다. 문장(8b)의 비문법성은 의존하는 동사와 본동사 사이에 부사가 놓여있다는 데에 근거한다. 만일 부사 *gestern*이 없다면 의존하는 동사의 보충어가 상위문의 주어 앞에 놓인다 하더라도 그 문장은 문법적이다. 긴밀구문에서 동사연결체는 어떤 구 Phrase에 의해 분리되어서는 안된다. 문장(8c)는 중의적이다. 부정어는 *zu stören*뿐만 아니라 *versuchen*에도 관련된다. 이러한 중의성은 긴밀구문 하에서 가능하다. 오직 대명사들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는 *봐커나겔* 위치는 중장의 맨 앞에 놓여있다. (8d)에서 부정법동사의 보충어가 상위문의 주어 앞에 놓여있다. 이것은 비긴밀구문의 경우 두 개의 중장이 존재하는 것과는 달리 긴밀구문의 경우 하나의 중장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동태의 경우에 능동문의 4격목적어가 1격 Nominativ으로 변화된다. (8e)에서 처럼 본동사가 수동화되었는데 의존하는 동사의 내재는항에 1격이 부가될 수 있는데 이를 장거리 수동 *langes Passiv*이라 한다.

## 2.2. 긴밀성을 기술하기 위해 제안된 분석들

### 2.2.1. 소개분석

독일어 문장의 문장성분들이 중장에서 자리바꿈되는 현상을 어순뒤섞기 Scrambling라 하는데, Fanselow(1989)는 어순뒤섞기와 관련하여 긴밀구문과 비긴밀구문의 범주를 다르게 가정함으로써 그 두 구문을 구분한다. 긴밀하지 않은 부정법구문(9c,d)의 문장성분들은 주문장으로 어순뒤섞기 될 수 없는 반면에, 긴밀한 부정법구문(9a,b)의 경우에 어순뒤섞기는 허용된다.

- (9) a. daß niemand [<sub>IP</sub> PRO den Wagen zu waschen] versuchte  
 b. daß den Wagen<sub>i</sub> niemand [<sub>IP</sub> PRO e<sub>i</sub> zu waschen] versuchte  
 c. daß niemand den Mann [<sub>CP</sub> PRO mir zu widersprechen] aufforderte

d. \*daß mir<sub>i</sub> niemand den Mann [<sub>CP</sub> PRO e<sub>i</sub> zu widersprechen]  
aufforderte

Fanselow는 긴밀구문의 문장성분이 주문장으로 어순뒤섞기되는 것<sup>5)</sup>을 설명하기 위해 Chomsky(1986)의 장벽의 정의 따라, CP는 어순뒤섞기에 대한 장벽이고 IP는 장벽이 아니므로 긴밀구문을 IP로 가정하고 비긴밀구문을 CP로 가정한다. 그러나 긴밀구문을 IP로 가정하는 설명은 PRO는 지배되지 않는다는 PRO-정리에 위배된다. 따라서 Fanselow는 긴밀한 부정법구문의 통사범주를 IP가 아니라 CP로 가정해야 할 것이다. 게다가 긴밀한 부정법구문이 CP라면 Fanselow에게 있어서 어순뒤섞기는 CP를 넘어 가능하지 않으므로 또 다른 문제점을 갖게 될 것이다.

긴밀한 부정법구문의 경우 본동사와 의존하는 동사는 주제화 될 수 있다. 이 두 동사의 주제화를 위해 Fanselow는 잔여-동사구-주제화 Remnant-VP-Topikalisierung를 가정한다. 이 때에 부정법구문에 포함되어 있는 구성성분들은 동사를 제외하고 모두 상위문의 IP로 부가된다. 이런 방식으로 부정법구문은 다음과 같이 소개 Evakuierung된다.

- (10) a. daß niemand [<sub>IP</sub> PRO den Wagen zu waschen] versucht hat  
b. daß den Wagen<sub>i</sub> niemand [<sub>IP</sub> PRO e<sub>i</sub> zu waschen] versucht hat  
c. [<sub>VP</sub>[<sub>IP</sub> PRO e<sub>i</sub> zu waschen]] versucht hat den Wagen<sub>i</sub> niemand

### 2.2.2. 동사상승분석

Sternefeld(1989)는 긴밀구문을 비긴밀구문으로부터 유도하기 위해 동사상승분석을 제안한다. 이 분석은 통합 Inkorporation과 어순뒤섞기로 되어 있다.

5) Fanselow는 이것을 장거리 어순뒤섞기(langes Scrambling)라 부른다.

(11) daß Max<sub>i</sub> jeder [CP PRO e<sub>i</sub> zu besuchen] versucht

Fanselow와는 달리 Sternefeld는 긴밀구문도 CP라 가정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처럼, CP가 어순뒤섞기에 대한 장벽이기 때문에 (11)에서 부정법동사의 보충어 Max<sub>i</sub>는 상위문의 IP로 직접 이동될 수는 없다. 이러한 장벽을 열기 위해 Sternefeld는 Baker(1988)의 통합이론 Inkorporationstheorie을 채택한다. 통합이론에 따르면 의존하는 동사는 상위문의 동사로 통합<sup>6)</sup>된다.

(12) a. daß jeder [vp[CP[vp Max zu besuchen]<sub>i</sub>] [PRO e<sub>i</sub>]] versucht

b. daß Max<sub>k</sub> jeder [vp[CP[vp e<sub>k</sub> e<sub>j</sub>]<sub>i</sub>] [PRO e<sub>i</sub>]] zu besuchen<sub>j</sub> versucht

의존하는 동사가 상위문의 동사로 상승된다는 것은 핵이동을 말하는데, 핵심어이동제약 때문에 의존하는 동사 zu besuchen은 상위문의 동사로 직접 상승될 수 없다. Sternefeld는 Baker에 따라 부정법구문의 전체 VP가 내재적으로 주제화된다고 가정한다. 달리 말해, 전체 VP는 CP의 지정어위치로 이동된다. CP의 지정어위치로 이동된 이후에 의존하는 동사는 CP의 삭제없이 상위문의 동사로 상승된다. Sternefeld는 또한 긴밀구문을 허용하는 동사들은 영-보문소 Null-Komplementierer를 선택하지 않고, 긴밀구문을 허용하지 않는 동사들은 영보문소를 선택한다고 가정한다<sup>7)</sup>. (12)에서 부정법구문의 목적어위치에 있는 Max는 상위문의 IP로 직접 부가될 수 없다. 내재적으로 주제화된 VP의 보충어인 Max가 상위문으로 어순뒤섞기되면 장벽의 정의<sup>8)</sup>에 따라 CP의 지정어위치는 CP의 핵에 의해 선택되지 않으므로 장벽이 아니다. 그러므로 Max는 상위문의 IP로 부가될 수 있다.

6) 여기서 통합은 상승을 의미한다.

7) Sternefeld가 이런 가정을 하는 이유는, CP의 지정어자리와 C가 동시에 채워질 수 없다는 제약에 따라 비긴밀구문을 허용하는 동사가 영-보문소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비긴밀부정법구문의 전체 VP가 내재적으로 주제화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8) 장벽의 정의에 대해서는 Baker(1988:56f) 참조.

Fanselow의 소개분석과 비교해 볼 때, 긴밀구문과 비긴밀구문을 모두 CP로 가정하는 분석은 긴밀구문을 IP로 가정할 때 상위문의 동사에 의해 지배되는 부정법문장의 주어 PRO를 CP가 보호한다는 장점을 갖는다.

### 2.2.3. 재분석

Stechow & Sternefeld(1988)는 비긴밀구문으로부터 긴밀구문을 유도하기 위해 재분석을 제안한다. 재분석이란 D-구조에서 형성된 부정법의 구조를 파괴시키고 새로운 구조로 변형시키는 분석이다.

- (13) a. weil der Förster [<sub>VP</sub>[<sub>CP</sub>[<sub>IP</sub> PRO sich zu rasieren]] versuchte]  
 b. weil der Förster [<sub>VP</sub>[<sub>VP</sub> sich zu rasieren] versuchte]  
 c. weil der Förster [<sub>VP</sub> sich [<sub>V</sub> zu rasieren] versuchte]  
 d. weil sich<sub>i</sub> der Förster [<sub>VP</sub> e<sub>i</sub> [<sub>V</sub> zu rasieren versuchte]]

(13a-d)에서 보듯이, 재분석의 경우에 CP, IP, PRO 등의 범주들은 삭제되고 상위문의 동사와 의존하는 동사는 재분석규칙<sup>9)</sup>에 따라 하나의 유일한 동사로 융합된다. 다시 말해, 그들은 동사복합체를 형성한다. 재분석을 통해 생성된 긴밀구문에서 문장가가 있는 부정법구문의 보문이 재분석 이전에 상위문의 주어 앞에 놓일 수 있다. 따라서 Stechow & Sternefeld는 어순뒤섞기를 다음과 같이 일반화한다.

- (14) 어순뒤섞기에 대한 일반화 (Stechow & Sternefeld 1988:464)  
 긴밀영역 내에서만 어순뒤섞기될 수 있다.

Stechow & Sternefeld는 복합체형성 이후에 어순뒤섞기규칙이 적용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13d)에서 sich<sub>i</sub>는 상위문의 주어 앞으로 어순뒤섞기될

9) 재분석규칙 (Stechow & Sternefeld 1988:418)

[.....[..... V2] V1] ==> [.....[V2 V1]]



수 있다. 재분석도 또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투영원리는 사전에 규정되어 있는 어휘요소의 논항구조가 모든 통사적 층위에서 범주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 (13a)에서 동사 *versuchen*은 문장보문인 CP를 하위범주화 한다. 투영원리에 따르면 동사 *versuchen*은 재분석된 구조에서도 CP를 하위범주화해야 한다. 그러나 (13b-d)에서 CP논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재분석은 투영원리와 일치하지 않는다.

#### 2.2.4. 통합분석

Haider(1993, 1994)는 긴밀구문은 비긴밀구문으로부터 유도된 구문이 아니라 D-구조에서 이미 복합투영체로서 생성된 하나의 문장가를 갖는 구문이라고 제안한다. Haider는 긴밀구문에서 관련된 동사들의 논항구조가 동사복합체를 위해 하나의 유일한 논항구조로 통합된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을 뒷받침해주는 격전환 *Kasuskonversion*이란 경험적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Höhle(1978)가 일찍이 주지시켰던 소위 장거리수동현상이다.

- (15) a. ?Zu reparieren versucht wurde *der Wagen* schon dreimal  
 b. ?Rechtzeitig einzuwerfen vergessen wurde *der Brief* nicht  
 c. daß schon dreimal versucht wurde, *den Wagen* zu reparieren  
 d. daß nicht vergessen wurde, *den Brief* rechtzeitig einzuwerfen

(Haider 1993:252)

긴밀구문(15a,b)의 경우에 상위문의 동사가 수동화되면 의존하는 동사의 보문에 1격이 부여되고, 비긴밀구문(15c,d)의 경우에 의존하는 동사의 보문은 격이 전환되지 않고 그대로 있다. 장거리수동현상은 상위문의 동사와 의존하는 동사가 D-구조에서 하나의 동사복합체를 이룬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래의 외재논항이 나타나지 않을 때에만 구조적인 내재논항이 외재화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Haider는 격전환현상을 통합된 논항구조의 내재논항이 외재화된 결과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상위문의 동사가 능격동사인 긴밀구문에서도 입증된다.

- (16) a. Zu entziffern gelungen ist mir *der Brief* auf Anhieb
- b. Zu entziffern schwergefallen ist mir *der Brief* nicht
- c. daß ihm auf Anhieb gelang, *den Brief* zu entziffern
- d. daß ihm nicht schwerfiel, *den Brief* zu entziffern

(Haider 1993:253)

통합분석에 따르면 두 개의 기능어는 하나의 복합기능자로 통합된다. 복합기능어 즉, 동사복합체는 마치 하나의 동사처럼 다루어진다. 복합기능어는 다음의 과정을 통해 하나의 고유한 논항구조를 갖는다.

- (17) a.  $V_i <A1, A2>$
- b.  $V_j <B1, B2, B3>$
- c.  $[V_j V_i] <A1, <B1, B2, B3>>$

관련된 동사들의 논항위치들을 보면, 상위문동사의 논항위치가 의존하는 동사의 논항위치들에 의해 대체된다. 그러나 기능어들은 임의적으로 통합될 수는 없다. 기능어들의 통합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 (18) a. 보문에 대한 선택체계
- b. 논항구조에 대한 제약

(18a)에 있는 체계는 Bech의 상태지배 Statusreaktion<sup>10)</sup>를 의미한다. 즉,

10) Bech는 독일어의 부정법동사형태를 3가지 상태를 통해 구분한다. 그에 따르면, 부정법동사는 제1상태, zu-부정법동사는 제2상태, 과거분사는 제3상태이다. 이러한 부정법동사의 특정한 상태는 어떤 동사에 의해 지배되는데 이를 상태지배라 한다.



(21)에서 상위문의 동사 versuchen과 의존하는 동사 öffnen은 각각 2개의 논항위치를 가지고 있다. 상위문동사의 목적어위치는 의존하는 동사의 논항들에 의해 대체된다. 그런 후에 의존하는 동사의 지정논항은 부정법표시 zu에 의해 차단되므로, 논항위치는 차단된 논항을 제외하고 모두 하나의 논항구조로 통합된다.

### 2.2.5. 중간요약

장거리수동과 같은 격전환현상은 긴밀구문이 비긴밀구문으로부터 유도된 변이체라는 가정에 모순이 된다. 따라서 유도적 분석들 즉, 소개분석, 동사 상승분석, 재분석은 경험적으로 타당하지 못하다. 또한 이런 분석들은 Chomsky(1991)의 경제성원리와 관련하여 이론적으로도 타당하지 못하다. 경제성원리에 따르면 모든 유도는 필수적이어야 하는데, 비긴밀구문에서 긴밀구문을 유도하는 분석은 문법적인 문장에서 문법적인 문장을 유도하므로 수의적인 분석이다. 유도적인 분석과는 달리, 통합분석에서는 격전환현상과 같은 경험적인 자료를 통합된 논항구조의 내재논항의 외재화된 결과로 잘 설명한다.

## 3. 긴밀구문으로서의 결과구문

### 3.1. 통사구조

타동사뿐만 아니라 자동사도 결과구문 Resultativkonstruktion을 허용한다. 타동사가 결과구문을 허용하면 타동결과구문이라 하고, 자동사가 결과구문을 허용하면 자동결과구문이라 한다.

- (22) a. Peter hat sein Haus rosa gestrichen  
 b. Peter hat den Nagel platt gehämmert  
 c. Sie haben das Lokal leer getrunken

d. Peter hat seine Partnerin müde getanzt  
(Staudinger 1997:73)

(22a,b)는 타동결과구문이고, (22c,d)는 자동결과구문이다. 결과구문은 한편으로 소절로 분석될 수 있고(vgl. Hoekstra 1988, Staudinger 1997), 다른 한편으로 복합체로 분석될 수 있다(vgl. Haider 1997, Neeleman 1995, Simpson 1983).

소절분석에 따르면 (23)에서처럼 결과술어와 결과술어 앞에 있는 명사구는 함께 하나의 통사단위를 형성한다. 복합체 분석의 경우에는 (24)에서 처럼 상위문의 동사와 결과술어가 마치 하나의 동사처럼  $X^0$ -층위에서 복합체를 형성한다.

- (23) a. Peter hat [sc sein Haus rosa] gestrichen  
b. Peter hat [sc den Nagel platt] gehämmert  
c. Sie haben [sc das Lokal leer] getrunken  
d. Peter hat [sc seine Partnerin müde] getanzt

- (24) a. Peter hat sein Haus [ $v_0$  rosa gestrichen]  
b. Peter hat den Nagel [ $v_0$  platt gehämmert]  
c. Sie haben das Lokal [ $v_0$  leer getrunken]  
d. Peter hat seine Partnerin [ $v_0$  müde getanzt]

### 3.2. 결과구문의 복합체형성

결과구문에서 상위문의 동사와 결과술어는  $X^0$ -층위에서 부가되어 기저 생성된 동사복합체이다. 이들이 동사복합체를 형성한다는 것은 다음의 3가지 특성에 의해 보여진다.

## 3.2.1. 부정어의 작용역

부정어의 최대 작용역은 문장이다. 긴밀구문은 오직 하나의 문장부정어만을 허용하지만, 비긴밀구문에서는 두 개의 부분문장이 존재하므로 두 개의 부정어영역을 허용한다.

- (25) a. daß Peter mich *nicht* müde geplaudert hat  
 b. daß er die Sohlen *nicht* dünn gelaufen hat

(25a,b)에서 작용역을 지니는 부정어는 결과술어뿐만 아니라 상위문의 동사에도 관련된다. 이것은 결과구문에서 부정어의 작용역은 상위문의 동사와 결과술어를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부정어의 작용역은 부정어가 시제동사를 성분통어하는 긴밀구문 하에서만 가능하다<sup>12)</sup>.

긴밀구문에서 분리된 작용역의 영역은 허용되지 않는다. 독일어에는 부정된 형용사구(AP)가 있다. 달리 말하면, 부정어는 AP에 나타날 수 있다<sup>13)</sup>. 따라서 만일 결과구문이 비긴밀구문 즉, 소절이라면 두 개의 부정요소를 허용해야 할 것이다.

- (26) a. \*daß Peter [mich *nicht* müde] *nicht* geplaudert hat  
 b. \*daß Peter mich *nicht nicht* müde geplaudert hat

---

12) 작용역 지니는 요소들의 일반적 가정 (Haider 1996)

문장부정어(Satznegation)는 부정표현이 기능적인 핵을 즉, 시제문장에서 시제동사를 혹은 문장가가 있는 부정법구문에서 시제를 지니지 않는 동사를 성분통어할 때에만 존재할 수 있다.

13) AP에 부정어가 나타나는 예문은 다음과 같다.

- a. der [AP mir *nicht* angenehme] Geruch  
 b. die [AP ihm *nicht* sympathische] Frau  
 c. das [AP ihr *nicht* fremde] Gemälde

그러나 (26a)에서 보듯이 결과구문에서 두 개의 부정요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더욱이 (26b)는 두 개의 부정요소가 상위문의 동사와 결과술어 앞에 나타날 때 비문법적이다. 결과구문에서 하나의 문장부정어만이 존재한다.

### 3.2.2. 분리될 수 없는 동사연결체

복합체를 형성하는 동사연결체는 부사와 같은 하나의 구성성분을 통해 분리될 수 없다. 결과구문에서 동사연결체는 결과술어와 동사로 이루어져 있다.

- (27) a. daß er die Vase kaputt geschlagen hat  
 b. daß sie ihn unter den Tisch getrunken hat  
 c. \*daß er die Vase kaputt *sorgfältig* geschlagen hat  
 d. \*daß sie ihn unter den Tisch *mehrmals* getrunken hat<sup>14)</sup>

(27c,d)에서 결과술어와 동사 사이에 부사와 같은 통사적 요소가 나타나면 문장들은 비문법적이다. 결과구문에서 결과술어와 동사는 분리될 수 없다.

### 3.2.3. 전장에 놓이는 동사연결체

결과술어로서의 기능을 하는 형용사와 전치사구 간에는 전장에 놓이는 것과 관련해서 어떤 차이를 보여 준다. 형용사적 결과술어가 전장에 놓이면 그 문장(28a-c)은 문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결과의 전치사구가 전장에 나타내면 그 문장(28d)은 문법적이다. 그것에 대한 근거는 전장에 놓이는 형용사들이 복합체가 존재할 때 AP가 아니라 A<sup>0</sup>이라는 데에 있다.

14) 부사나 부정어 같은 요소는 결과술어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는 전치사구와 동사 사이에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전치사구와 동사가 복합체를 형성하지 않는다.

daß sie ihn unter dem Tisch *mehrmals/nicht* gefunden hat

- (28) a. ??*Müde* hat Peter mich geplaudert  
 b. ??*Dünn* hat er die Sohlen gelaufen  
 c. ??*Kaputt* hat er die Vase geschlagen  
 d. *Unter den Tisch* hat sie ihn getrunken

어휘적인 요소들이 함께 전장에 놓일 수 있다면, 이것은 독일어에서 하나의 구성성분만이 전장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요소들이 하나의 구성성분에 속한다는 것에 대한 증거이다. 결과구문에서 결과술어와 동사는 함께 전장에 놓일 수 있다. 따라서 결과술어와 동사는 하나의 통사단위를 이룬다.

- (29) a. *Müde geplaudert* hat Peter mich  
 b. *Dünn gelaufen* hat er die Sohlen  
 c. *Kaputt geschlagen* hat er die Vase  
 d. *Unter den Tisch getrunken* hat sie ihn

#### 4. 소절구조에 반대되는 증거

유도적인 분석들은 긴밀구문이 비긴밀구문인 소절로부터 유도되었다고 설명하는데, 4장에서는 긴밀구문에 대한 본래의 구조로 가정되는 소절에 반대되는 증거가 새로운 긴밀구문으로 제안된 결과구문 내에서 제시된다.

##### 4.1. 작용역

부정어와 부사는 작용역을 지니는 요소이다. Haider(1996)에 따르면 부사는 위치에 따라서 성분통어영역에 일치하여 의미적으로 결합된다. 문장가가 있는 구문은 작용역의 영역을 이룬다. 만일 결과구문이 소절이라면, 결과구문을 포함하는 문장에는 두 개의 작용역의 영역이 존재해야 한다.



- (30) a. daß er ja [sc sie *mitunter* müde] tanzt  
 b. daß sie ja [sc ihn *mitunter* grün und blau] schlägt

(30a,b)에서 부사 *mitunter*는 소절 안에 놓여 있다. 따라서 그 부사는 좁은 작용역 *enger Skopus*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부사는 전체 문장에 대한 넓은 작용역 *weiter Skopus*을 가진다. 부사의 작용역은 (31)에서처럼 소절의 술어뿐만 아니라 시제동사에도 관련된다.

- (31) a. Es ist *mitunter* der Fall, daß er ja sie müde tanzt  
 b. Es ist *mitunter* der Fall, daß sie ja ihn grün und blau schlägt

부사는 긴밀성 하에서 전체문장에 대한 작용역을 갖는다. 소절분석 하에서는 부사가 전체문장에 대한 작용역을 갖기 위해 기껏해야 술어상승과 소절의 전체적인 소개 *totale Evakuierung*가 가정되어야 한다.

- (32) daß [<sub>VP</sub> er [<sub>VP</sub> ja [<sub>VP</sub> sie<sub>j</sub> [<sub>VP</sub> *mitunter*<sub>k</sub> [<sub>V</sub>[<sub>AP</sub> t<sub>j</sub> t<sub>k</sub> t<sub>i</sub>] [<sub>VO</sub> müde<sub>i</sub> tanzt]]]]]]]]

(32)에서 본래의 소절구조 AP에는 술어상승과 소절의 전체적인 소개로 인하여 흔적 이외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따라서 소절이 어떤 통사적 역할을 하지 못하므로 처음부터 소절을 가정하지 않는 것이 더 경제적인 것이다. 더욱이 (33)에서 부사 *mitunter*가 시제동사를 성분통어하기 위해 소절 앞에 놓여 있다고 가정할 수 없다. 그 이유는 *wen*과 같은 대명사는 어순뒤섞기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sup>15)</sup>.

15) 독일어에서 의문사구 Wh-Phrase가 어순뒤섞기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Grewendorf & Sternefeld (eds.) (1990), Haider(1996), Stechow & Sternefeld (1988) 참조.

- (33) a. daß er ja [sc wen mitunter müde] tanzt  
 b. daß sie ja [sc wen mitunter grün und blau] schlägt

소절분석 하에서 부사가 전체문장에 대한 넓은 작용역을 갖는다는 것은 성분통어조건 때문에 기대될 수 없다. 다시 말해, 소절 안에 있는 부사 mitunter는 시제동사를 성분통어하지 못하고 따라서 부사의 작용역은 소절로 제약된다.

#### 4.2. 관용어화

관용어화 Idiomatisierung란 두 개 이상의 어휘요소들이 모여서 하나의 의미단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독일어에는 관용어화된 고유재귀동사가 있다. (34)에서 재귀동사 sich gehenlassen은 *자제력을 잃다* 혹은 *홍분하다*란 의미를 지니고, sich totlachen은 *참을 수 없이 웃다*란 의미를 갖는다.

- (34) a. Auf der Party ließ er sich ziemlich gehen  
 b. Er lacht sich tot

고유재귀사를 포함하는 결과구문도 있다. 결과술어가 재귀대명사와 함께 나타나면 문장(35a,b)이 문법적인 반면에, 그 재귀대명사가 인칭대명사를 통해 대체되면 문장(35c,d)은 문법적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 (35) a. Er arbeitet sich krank  
 b. Er schläft sich gesund  
 c. ??Er arbeitet ihn krank  
 d. ??Er schläft ihn gesund

고유재귀사를 포함하는 결과구문에서 결과술어와 동사는 관용어화된 재귀동사처럼 분석될 수 있다. 관용어화는 어휘요소들이 의미단위를 형성하는 구성성분의 형성이고, 의미단위는 통사단위이다.

관용표현도 복합술어도 변형되기 이전에 어휘부에서 하나의 통사단위를 형성한다. 관용어화된 결과구문의 경우, 동사와 소절의 결과술어는 D-구조에서 통사단위를 형성할 수 없으므로 소절분석(36) 하에서 관용어화는 가능하지 않다.

(36) daß [<sub>VP</sub> er [<sub>V[AP(SC)]</sub> sich [<sub>A<sub>0</sub></sub> krank]] [<sub>V<sub>0</sub></sub> arbeitet]]

## 5. 맺는 말

본 논문에서는 독어통사론의 부분영역에 속하는 긴밀구문에 대해 논의되었다. 긴밀구문이 비긴밀구문으로부터 유도될 수 있을까라는 문제와 함께 출발한 본 논문은 논의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 첫째, 긴밀구문은 비긴밀구문으로부터 유도되지 않는, 기저생성된 하나의 문장가를 지니는 단순문장구문이다.
- 둘째, 결과구문은 긴밀구문이다.
- 셋째, 긴밀구문에 대한 본래의 구조로 가정된 소절구조는 작용역과 관용어화를 통해 본 바처럼 옳지 않다.

## 참 고 문 헌

- Baker, M.C.(1988): *Incorporation - A Theory of Grammatical Function Changing*.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ech, G.(1955/57): *Studien über das deutsche verbum infinitum*. Kopenhagen: Munksgaard.
- den Besten, H. & J. Rutten(1989): On Verb Raising, Extraposition and Free Word Order in Dutch. In:D.Jaspers, W.Klooster, Y.Putseys & P. Seuren (eds.): *Sentential Complementation and the Lexicon*. Studies in honour of Wim de Geest. Dordrecht: Foris, 41-56.

- Chomsky, N.(1986): *Barriers*. Cambridge, Mass.: MIT Press.
- Chomsky, N.(1991): Some Notes on Economy of Derivation and Representation. In: Freidin (ed.): *Principles and Parameters in Comparative Grammar*. Cambridge, Mass.: MIT Press, 417-457.
- Fanselow, G.(1988): Coherent Infinitives in German: Restructuring vs. IP-Complementation. In: C. Bhatt, E. Löbel & C. Schmidt(eds.): *Syntactic Phrase Structure Phenomena in Noun Phrases and Sentences*. Amsterdam: Benjamins, 1-16.
- Geilfuß, J.(1991): Verb- und Verbphrasensyntax. *Arbeitspapiere des SFB 340*, Nr. 11. Univ. Tübingen.
- Grewendorf, G.(1987): Kohärenz und Restrukturierung: Zu verbalen Komplexen im Deutschen. In: Asbach-Schniker, B. & J. Roggenhofer (eds.): *Neure Forschung zur Wortbildung und Historiographie der Linguistik*. Tübingen: Narr, 123-144.
- Grewendorf, G.(1988): *Aspekte der deutschen Grammatik. Eine Rektions- und Bindungsanalyse*. Tübingen: Narr.
- Grewendorf, G. & W. Sternefeld (eds.)(1990): *Scrambling and Barriers*. Amsterdam: Benjamins.
- Haegeman, L.(<sup>2</sup>1994): *Introduction to Government and Binding Theory*. Oxford: Basil Blackwell.
- Haider, H.(1993): *Deutsche Syntax, generativ*. Tübingen: Narr.
- Haider, H.(1994): Fakultativ kohärente Infinitkonstruktion im Deutschen. In: Steube, A. & G. Zybatow (eds.): *Zur Satzwertigkeit von Infinitiven und Small Clause*. Tübingen: Niemeyer, 75-106.
- Haider, H.(1996): Wenn die Semantik arbeitet, - und die Syntax sie gewähren läßt. In: Harras, G. & M. Bierwisch (eds.): *Wenn die Semantik arbeitet*. Tübingen: Niemeyer, 1-27.
- Haider, H.(1997): Precedence among Predicates. *The Journal of Comparative Germanic Linguistics 1*: 3-41.
- Hoekstra, T.(1988): Small Clause Results. *Lingua 74*: 101-139.

- Höhle, T.(1978): *Lexikalische Syntax: Die Aktiv-Passiv-Relation und andere Infinitivkonstruktionen im Deutschen*. Tübingen: Niemeyer.
- Jacobs, J.(1990): Skopus und Inkohärenz. Ms., Univ. Wuppertal.
- Neeleman, A.(1995): Complex Predicates in Dutch and English. In: H. Haider, S. Olsen & S. Vikner (eds.): *Studies in Comparative Germanic Syntax*. Dordrecht: Kluwer, 219-240.
- Rapoport, T.R.(1993): Verbs in Depictives and Resultatives. In: Pustejovsky (ed.): *Semantics and the Lexicon*. Dordrecht: Kluwer, 163-184.
- Simpson, J.(1983): Resultatives. In: L. Levin, M. Rappaport & A. Zaenen (eds.): *Papers in Lexical-Functional Grammar*. Indiana University Linguistics Club, 143-157.
- Staudinger, B.(1997): *Sätzchen: Small Clauses im Deutschen*. Tübingen: Niemeyer.
- Stechow, A.v. & W. Sternefeld(1988): *Bausteine syntaktischen Wissens. Ein Lehrbuch der modernen Generativen Grammatik*. Opladan: Westdeutscher.
- Sternefeld, W.(1989): Beheaded Barriers. *Arbeitspapier Fachgruppe Sprachwissenschaft*, Nr. 14. Univ. Konstanz.
- Wöllstein-Leisten, A.(1998): *Die Syntax der Dritten Konstruktion im Deutschen - Untersuchungen zur Monosentialität von 'zu'-Infinitiven*. Dissertation, Univ. Stuttgart.
- Wöllstein-Leisten, A., A. Heilmann, P. Stepan & S. Vikner(1997): *Deutsche Satzstruktur. Grundlagen der syntaktischen Analyse*. Tübingen: Stauffenburg.

## Zusammenfassung

### Über die kohärente Resultativkonstruktion

Choi, Do-Gyu(Chungbuk Nat'l Univ.)

Im Rahmen der Prinzipien und Parametertheorie ist die kohärente Konstruktion umstritten in bezug auf die Frage, ob sie von der satzwertigen, inkohärenten Konstruktion(i.e. Small Clause) herleitbar ist oder nicht. Die derivationellen Analysen wie Evakuierungsanalyse, Verbanhebungsanalyse und Reanalyse gehen von der Annahme aus, daß die kohärente Konstruktion eine von der inkohärenten Konstruktion derivierte Variation ist. Im Gegensatz dazu ist nach der Unifikationsanalyse die kohärente Konstruktion die basisgenerierte monosententiale Konstruktion.

In der vorliegenden Arbeit wird versucht, die empirische und theoretische Unadäquatheit der derivationellen Analysen zu zeigen. Wenn die derivationellen Analysen korrekt wären, müßte auch nach der Derivatoren beim langen Passiv das Akkusativkomplement der Infinitivkonstruktion ohne Kasuskonversion bleiben. Aber in der Tat wird der Nominativkasus dem Komplement der Infinitivkonstruktion zugewiesen. In der empirischen Gesichtspunkten steht das lange Passiv nicht im Einklang mit den derivationellen Analysen. Ferner muß nach Chomskys Ökonomieprinzip die Derivation obligatorisch sein. Aber die derivationellen Analysen, nach denen der grammatische Satz vom grammatischen Satz deriviert wird, ist nicht obligatorisch, sondern fakultativ. Sie sind theoretisch nicht adäquat.

In dieser Arbeit wird die Resultativkonstruktionen als weitere kohärente Konstruktion vorgeschlagen. Dabei wird die Evidenz gegen die

Small Clause Struktur, die nach den derivationellen Analysen als ursprüngliche Struktur der kohärenten Konstruktion angenommen wurde, zweierlei wie folgt gezeigt: Skopus und Idiomatisierung.

Wenn die Resultativkonstruktionen als Small Clause analysiert werden, kann ein Adverb innerhalb des Small Clause auftreten, das den weiten Skopus über den Gesamtsatz hat. Aber unter der Small Clause Analyse kann tatsächlich das Adverb wegen der K-Kommandobedingung keinen weiten Skopus. D.h. das Adverb kann das finite Verb nicht k-kommandieren. Idiomatisierung bildet vor der Transformation im Lexikon eine syntaktische Einheit. In der Resultativkonstruktion, die das inhärente Reflexivum enthält, können das Resultativprädikat und das Verb wie ein reflexives Verb analysiert werden. Aber unter der Small Clause Analyse ist Idiomatisierung des Resultativprädikats und Verbs nicht möglich, weil sie in der D-Struktur keine syntaktische Einheit bilden.